

노화와 죽음에 대한 비교종교학적 연구:

유교, 불교, 및 기독교를 중심으로

Religious Perspectives on Aging and Death: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Confucianism, Buddhism, and Christianity

임 형 권*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Hyeongkwon Lim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초록)

노화와 죽음의 의미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로 종교마다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시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삶과 죽음을 인간의 근본적 고통으로 간주하면서 해탈을 통해 그 고통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불교에서 노화와 죽음은 인간이 삶의 무상성을 깨닫게 하여 삶을 해탈이라는 목표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한편 현세적 치세에 관심이 많은 유교에서 노화와 죽음의 의미는 효의 실천을 통한 윤리적 이상 아래서만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의 경우 노화와 죽음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이해되며, 신의 구속은 노화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준다고 주장된다. 노화와 죽음에 대한 여러 종교의 공통적 교훈은 노화를 인간 성숙을 위한 정신적, 영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 있다.

주제어 : 노화, 죽음, 해탈, 효, 구속, 영적 성장

(Abstract)

The meaning of aging and death, which goes beyond scientific investigation, has been suggested by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For instance, Buddhism seeks to overcome aging and death, which is regarded as fundamental sufferings of humankind. However, aging and death, making us be aware of the transience of our life, paradoxically plays the positive role of interpreting present life as a process toward Nirvana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임형권 박사 (e-mail: lhkwon75@naver.com).

(self-enlightenment). Although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central preoccupation of Confucianism, unlike Buddhism, lies in the political maintenance of this world, the order of this world is established by the practice of filial piety, and the significance of aging and death can only be understood under the ethical ideal based on filial piety. Since aging and death is understood by Christianity as the consequence of the Fall of man, this perverted state should be restored by God's salvation. In sum, the significance of aging and death shared by different religions lies in their understanding of aging and death as a process toward human mental and spiritual growth.

Key words : Aging, Death, Nirvana (self-enlightenment), Filial piety, Salvation, Spiritual growth

I. 서 론

생명의 문제를 과학이 모두 해명할 수 없는 것처럼 노화와 죽음의 본질에 대한 해명도 역시 과학적 설명의 한계를 넘어선다.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scientific world view)이 인간의 삶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생의 목적과 의미, 인간의 본성과 운명, 사후의 삶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학과 종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근대 이후 철학은 앎(지식), 존재, 의미, 가치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지만, 고대에는 철학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고, 철학도 종교의 중심 문제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가령,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은 삶을 죽음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이해했다. 이 말을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면 삶 자체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인류의 오래된 지적, 영적 전통에서는 삶과 죽음의 차원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함

께 묶여 있는 영역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삶의 과정, 즉 노화의 과정과 죽음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Moberg, 2005; Sorabji, 2006).

생명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이 다양하듯이 죽음에 대한 해석도 철학자마다 또 종교인마다 각자 나름의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 어떤 철학적, 종교적 세계관을 선택하는지의 문제는 각 개인에게 달려 있겠지만, 서로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평안한 죽음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비종교인이더라도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 관심사항(ultimate concern)이 되기 때문이다(Tillich, 1959).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고등 종교들인 유교, 불교, 및 기독교의 노화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비교, 고찰하였다. 비교 종교학적 고찰의 의의는 여러 종교들 사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여 해당 종교의 신자들이 노화와 죽음에 대한 자신의 종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 타종교의 입장들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나아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종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일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노화와 죽음에 대한 불교의 관점

인도의 힌두교를 배경으로 성립된 불교는 힌두교의 아트만(Ātman), 즉 고정 불변의 실체적인 자아의 개념에 도전하면서 소위 무아(無我, anātman) 사상을 주장한다. 불교가 무아설을 주장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무아설을 근본 틀로 하여 업(業) 사상, 윤회(輪廻) 사상, 연기(緣起) 사상, 공(空) 사상 등을 제시하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Ruegg, 1997).

글의 주제인 죽음과 노화의 문제도 이러한 불교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다. 노화와 죽음은 불교가 제시하는 네 가지 고통(四苦), 즉 생로병사(生老病死)에 속한다. 불교는 노화와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 자체가 고통을 품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생로병사를 비롯한 여러 인간의 고통들은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며, 인간의 자아를 잘 분석하면 그 괴로움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다. 자아의 깊은 뿌리에 놓여 있는 욕망은 끝없는 갈증을 일으켜 인간을 괴롭힌다. 그렇지만 불교는 만일 이 자아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허구라는

사실을 깨달을 경우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교의 자아관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흄(David Hume)의 자아관, 즉 자아를 “다양한 지각들의 묶음 또는 모음”(a bundle or collection of different perceptions)이라고 정의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Hume, 1956).

흄의 경험론 철학의 자아관에 의하면,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얻는 감각적 자료들이 모아진 것 자체가 자아이다(Traiger, 1985).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온(五蘊)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즉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을 가리킨다. 색은 물질 곧 인간의 몸을 의미한 반면, 나머지 넷은 인간의 의식 현상을 말한다. 수는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작용, 상은 개념을 만들거나 표상하는 작용, 행은 주로 의지적 작용을 말하며, 그리고 식은 인간의 판단과 분별 의식을 가리킨다. 인간은 바로 물질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이 결합해 있는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구성 요소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無明)이다. 인간의 몸은 여섯 가지 감각 기관과 의식의 능력을 말하는 육처(六處), 즉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뜻(意)을 통해서 대상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신적 작용이 이루어지고 또 개체 인간이 형성된다. 불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자체가 하나의 구성물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들이 쇠하여 없어지는 노화와 죽음도 결국 자아의 허구성을 깨닫는다면, 해탈과 더불어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김

월운, 2006). 붓다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비구야, 비유하면 두 손이 합해서 서로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이 눈과 빛깔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 세 가지가 화합한 것이 감촉(觸)이니, 감촉이 합계하면 느낌(受)·생각(想)·의도(思)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법은 내가 아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무상한 나요, 영원하지 않고 안온하지 않으며, 변하고 바뀌는 나이나라. 왜냐하면 비구야 그것은 이른바 나고 늙고 죽고 사라지며 태어남을 받게 하는 법이기 때문이니라. 비구야 모든 행(行)은 허깨비와 같고 불꽃과 같으며 잠깐 동안에 다 썩는 것으로서 진실로 오고 진실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구야, 공(空)한 모든 행에 대해서 마땅히 알고 마땅히 기뻐하며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 공한 모든 행은 항상 머무르고 변하거나 바뀌는 법이 아니다. 공(空)에는 나(我)도 없고 내 것(我所)도 없느니라[김월운 역 (2006)의 “잡아함경 2”, 11권, 수성유경].

불교적 관점을 엄밀하게 살펴볼 때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불교가 삶과 죽음 모두 거대한 윤회의 사슬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교의 목표는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처럼 죽음을 이기고 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자아관, 인간관에 따르면, 사실 불교에서 죽음은 일종의 해체(dissolution) 현상 이상의 것이 아

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와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인간이 탄생하고 죽을 때까지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초기 불교에서 비구들 사이에서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살을 방조하는 경우도 있었다(안양규, 2015).

불교의 교리로 볼 때 이해가 가지만, 붓다가 결코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를 바랬던 것이 아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간에 살인은 불교가 금하는(不殺生) 엄격한 오계(五戒) 중 하나이다. 불교의 이상인 해탈의 상태는 결코 삶을 증오하는 태도와 양립할 수 없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만물과의 관계성, 즉 연기 사상은 만물이 조화하고 화해하는 상태이지, 증오의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고통에 짓눌려 있는 삶 자체를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잘 보존하는 노력이 원래 붓다의 가르침이다. 곧 붓다는 동물을 죽여 희생시키는 제사 행위도 비판했다(안양규, 2015).

이러한 태도는 불교적 입장에서 삶의 과정, 즉 노화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사실 생명의 유지나 장수는 거의 모든 현대인들의 희망사항이다. 의료적 관점에서 수명의 연장에만 열중하는 것은 인간의 노화과정이 지닌 더 높은 정신적 차원을 망각하는 일이다.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또 종교가 없더라도 살아가면서 불교의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노화 자체가 고통이더라도 다른 모든 고등 종교들이 가르치는 바처럼 고통에서 참된 삶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친다. 자신과 타인의 늙어가는 신체를 보면서 그리고 타인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생의 무상성을 배울 수 있다. 이 무상성 때문

에 불교는 인간을 허무주의에 빠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 곧 욕망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팔정도(八正道)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바로 인간의 세 가지 번뇌인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로부터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붓다가 제시한 길이다. 붓다는 노화와 죽음의 무상성을 극복하는 길이 바로 이러한 올바른 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김월운, 2006). 그는 이 길이 옛 선인(仙人)의 길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나도 그와 같이 옛 선인의 길, 옛 선인의 지름길, 옛 선인의 자취, 옛 선인이 갔던 곳을 얻었고, 나도 그 길을 따라 가게 되었다. 그것은 팔정도(聖道)를 일컫는 말이니, 즉 바른 소견(正見), 바른 뜻(正思), 바른 말(正語), 바른 업(正業), 바른 생활(正精進), 바른 방편(正命), 바른 기억(正念), 바른 선정(正定)이 그것이니라. 나는 그 길을 따라 늙음(老), 병듦(病), 죽음(死)과 늙음, 병듦과 죽음의 발생과 늙음, 병듦, 죽음의 소멸과 늙음, 병듦, 죽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보았다(김월운 역 (2006)의 “잡아함경 2”, 12권, 성음경).

불교에서 노화의 과정은 고통의 과정인 동시에 해탈로 향한 과정이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과정, 즉 자아가 만들어 낸 망상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나이가 들어감의 과정이다. 이는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임과 동시에 이타적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해탈의 길은 만물

이 연기적인 관계, 즉 상호 관련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 누구든지 이러한 과정을 매우 힘든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윤회의 업이 그 정진의 노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에 ‘윤회는 곧 열반이다.’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를 인간의 노화와 죽음과 관련시켜 해석하면,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노화 속에서 인간의 참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늙음의 현상 자체가 자아라는 허구적인 개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늙음 자체가 상대화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죽음은 인간의 해탈 과정에서 한 사건에 불과하며, 어떤 의미로 그것을 촉진하는 면도 내포하고 있다.

III. 노화와 죽음에 대한 유교의 관점

종교학적으로 볼 때 유교는 원시 조상숭배에서 출발한다. 이 원시 종교 형태를 인(仁)의 이상을 중심으로 윤리화, 합리화시킨 사람이 바로 공자(孔子)이다. 공자는 귀신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자세를 갖되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충고했고(敬鬼神而遠之, 『論語』, 「雍也」, 20), 잘 알려진 대로 계로(季路)가 죽음에 대해 묻자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未知生焉知死, 『論語』, 「先進」, 11)라고 대답했다. 공자는 현실 사회의 윤리적 질서의 유지에 관심을 두었고, 초자연적인 일보다는 현실적, 실천적 문제에 관심을 더 두었다(김학주, 1999).

그러나 정치나 윤리 문제에 치중했다고 하

더라도 조상숭배에서 출발한 유교는 그 종교적 성격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다. 유교의 종교성은 그 효(孝)사상을 통해 발현되었는데, 이 종교성이야말로 유교의 윤리적 질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유교는 죽음의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는 유교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개인 윤리, 가정 윤리, 사회 윤리 등이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유교는 소멸하는 개체 인간의 생명을 자손에게 전수시킴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유교의 중심 가치에 효가 있는 것이고, 이 가정윤리로서의 효가 확대되어 사회윤리로서의 충(忠)이 확립된다(이용주, 2015).

유교에서 효의 가치는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교에서 효가 중시되는 이유는 그것이 공자의 인 사상의 중심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면서 인간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통치의 지혜를 묻는 양나라 혜왕에게 맹자는 인(仁)과 의(義)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어질면서도 그의 부모를 소홀히 한 사람은 없었으며, 의로우면서도 그의 임금을 뒤로 했던 사람은 없었다.”(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孟子』, 『梁惠王, 上』, 1)고 말한다(김학주, 2013). 즉, 효를 바탕으로 다른 윤리적 가치들이 발전한다. 유교에서 인간관계는 차별의 질서에 기초하며, 그 형식적 측면이 바로 오륜(五倫)이며 또 그 내용적 측면이 바로 오상(五常), 즉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덕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인데, 공자는 부모를 잘 모시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孝弟, 『論語』, 『學而』, 2)을

인의 근본으로 삼았다. 결국 유교에서 인간됨은 바로 효를 바탕으로 한 여러 윤리적 덕목을 습득해가는 것을 의미한다(김학주, 1999).

이러한 윤리적 성장은 단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자는 “나는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30세에는 자립을 했으며, 40세에는 미혹되지 않게 되었고, 50세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세에는 귀로 듣는 대로 모든 것을 순조로이 이해하게 되었고, 70세에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좇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게 되었다(五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論語』, 『爲政』, 4)”고 고백했다. 물론 유교에서도 인간의 생물학적 노화를 부정적으로 여겼는데, 공자는 “심히도 내가 노쇠하였구나! 오랫동안 나는 주공을 다시 꿈에 보지 못했다(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論語』, 『學而』, 5)”고 자신의 몸의 쇠약해지는 것을 한탄했다(김학주, 1999). 그러나 공자의 한탄은 몸 자체가 약해지는 것에 대한 한탄이라기 보다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에 대한 큰 그리움 속에서 나온 한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교에서 나이가 들의 의미는 생물학적, 의학적 차원보다는 윤리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유교에서 효는 현세의 인간관계, 인간의 성장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더 관련이 크다. 다시 말하면, 유교는 삶과 죽음의 차원을 효 사상을 매개로 해서 연결시킨다. 유교에서 제사는 효의 극치로 이해되는데, “죽은 분 섬기기를 산 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없는 분들을 섬기기를 생존해 계

신 분 섬기는 것같이 하는 것이 효의 극치인 것이다(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 『中庸』, 3.5).”고 했다. 그리고 이 효를 통해 닦은 덕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김학주, 1995). 유교의 오경(五經) 중 하나인 서경(書經)의 홍범(弘範)편에 인간의 다섯 가지 복을 제시하는데, 수(壽), 부(富), 강령(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 그것들이다. 유교에서 조상에 대한 감사 표시인 제사는 이러한 현세적 가치들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유교는 죽음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현세적 삶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유교에 천명(天命) 사상이 있는데, 이는 하늘의 의지가 인간사를 결정한다는 세계관이다. 심지어 인간의 생사 문제도 하늘에 달렸다고 여겨진다. 신세를 한탄하는 사마우(司馬牛)에게 공자의 제자 자하(子夏)는 스승의 말을 빌려 “생사는 운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死生有命, 富貴在天, 『論語』, 『顏淵』, 5)”고 말한다(김학주, 1999). 하지만 이 말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인간이 하늘에 대한 책임 있는 도덕적 태도를 강조하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곧 유교의 천명 사상에 따르면, 삶과 죽음 모두 인간 본성의 실현, 즉 사회적 의무와 책임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생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본성의 실현이다. 이러한 점은 송(宋)대의 성리학(性理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을 기(氣)와 이(理)로 이루어진 존재로 여기는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이 기의 해체로 이해된다(박성래, 2011). 이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이자 인간의 진정한

본질에 해당된다. 사실 성리학에서는 이가 없다는 것을 육체적 죽음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죽음으로 여긴다. 이 생각은 공자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 및 “아침에 도에 대해 들어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 『論語』, 『里仁』, 8)”라고 한 말에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이용주(2015, p. 148)는 “신체의 생명과 정신 도덕의 생명, 둘 다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사람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 인간이 아니게 되고서는 살아남아도 인간으로서는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성리학의 이기론적 관점으로 공자의 사상을 재해석하고 있다.

유교에서 노화와 죽음에 대한 관점을 요약하면, 이 둘은 효를 통해서 매개되고 있고, 또 효를 출발점으로 하는 유교의 윤리적 이상은 삶의 전 과정이나 심지어 죽음보다 더 상위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닌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윤리적 책무가 증대됨을 의미하고, 이를 성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인 취급을 받는다. 노인과 죽은 이들에 대한 공경도 역시 효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아울러 유교에서는 신체적인 죽음보다 정신적인 죽음을 더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윤리적 가치를 위해서는 신체적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IV. 노화와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

종교학자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규정한다. 기독교를 역사

적 종교라고 규정하는 것은 특히 기독교 교리의 창조 사상과 성육신(成肉身) 사상을 근거로 한다(Eliade, 1998). 기독교는 창조를 무(無)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교리적 주장은 그리스의 플라톤주의에서 선제하는 물질을 가지고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서의 반응이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기독교 입장에서 물질과 정신을 이원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고 정신을 물질보다 질적으로 우위에 둔 플라톤주의를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플라톤주의에서는 물질이 기본적으로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특히 몸이라는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다(Young, 1991).

기독교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만일 신이 저급한 물질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이 이미 오염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이 선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이 물질 자체를 창조했다고 하면 그 물질을 악하다고 할 수 없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신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좋았더라!”(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라는 반복적 표현을 근거로 물질세계 자체의 선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물질 뿐만 아니라 시간도 신의 창조물로 보고 있다(Pranger, 2001). 초대 기독교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 354-430)는 다음과 같이 시간을 바라보았다(성한용, 2003).

당신이 창조하시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갑니까? 당신은 모든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떤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어찌하여 당신은 창조 이전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쉬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조차도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오니 당신이 만드시기 이전에는 아무 시간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물질, 특히 몸과 시간을 신이 선하게 창조했다는 사상은 기독교 입장에서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 이는 창조와 더불어서 피조물(특히 인간)의 실재적 타락에 관한 주장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예레미야 17장 9절)라고 선언하면서 만물, 특히 인간의 타락을 고발한다. 선한 창조물은 타락,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로 인해 오염된 상태에 있다. 만일 선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상태를 온전히 회복시키려 할 것이다. 바로 이 회복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이상이 기독교적 세계 이해의 기본 틀이다. 우리는 이 기독교적 틀에서 노화와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창조 사상과 관련해서 노화와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전술한 바처럼 신은 선하게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노화는 신의 창조의 원래 상태가 아니다.

이와 같은 창조사상과 구속 신앙 속에서 노화와 죽음을 이해할 때 기독교는 삶의 과정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는 기독교의 역사관, 시간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역사를 직선적으로 이해함을 뜻한다. 기독교는 창조에서 심판과 종말에 이르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세계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실존과도 불가분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가장 철학적으로 잘 설명한 기독교 사상가는 전술한 아우구스티누스이다. 기독교에서 노화와 죽음을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상가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아프리카 Hippo(현재 알제리에 속함)에서 기독교의 감독(Bishop)으로 활동하며, 유명한 ‘고백록(Confessions)’을 작성한다(Brown, 2013).

그 책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로 시간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다. 과학적 지성을 갖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의 문제를 행성의 순환 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인간 외부에 실재하는 우주적 흐름이며 영원하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서구의 지성사에 기여한 점은 시간이 인간의 의식 속에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하는 과거의 현재, 기대에 의존하는 미래의 현재, 그리고 현재의 현재가 있다(Brown, 2013; Pranger, 2001).

나에게 명확히 드러나 밝혀진 것은 미래의 시간이나 과거의 시간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적당치 않습니다. 아마 ‘과거 일의 현재’,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혼(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과거 일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 일의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 일의 현재는 기대입니다.

즉, 인간은 영원한 현재만 경험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은 덧없이 가고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현재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라는 사실이 기독교적 시간관에서 중요하다. 현재는 신의 영원성 속에서 의미를 갖는 시간이다.

이제 이러한 철학적 논의가 노화와 죽음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생각해보자. 기독교인에게 늙어감이란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다. 늙어감 자체가 타락 이후의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 영원한 현재 속에 일어나는 인간의 경험은 신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시간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사건은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자에게 과거의 시간, 즉 기억 속의 시간은 죄로 물들어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구속 받은 현재는 앞으로의 시간, 즉 소망의 시간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시간 의식 속에서 미래는 체념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가온다.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죽음을 극복했듯이, 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한다. 그래서 예수 이후에 기독교 사상을 가장 드높인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린도후서 4장 16절)라고 고백하면서, 쇠약해져 가는 육신보다 정신적, 영적 갱신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육신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니다. 십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장 12절)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특히 강조한다. 또 구약성서를 보면, 인생 경험이 많은 노인이 가진 권위는 존중되었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Rehoboam)이 아버지를 보필했던 노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동년배 친구들의 조언을 들어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열왕기상 12장 6-15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를 증명해준다. 구약성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백발로 상징되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강조하는데,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장 32절)가 그 기록이다. 이러한 전통은 신약성서, 즉 기독교로 이어져서 여기서도 노인에 대한 공경이 역시 강조되고 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디모데전서 5장 15절).

정리하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노화를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보지만,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화와 죽음은 신의 구속 행위 속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노화와 죽음이 부정적이면서도 세계의 회복이라는 견지에서 긍정적 의미로 전환된다.

V. 비교 종교학적 관점의 종합 고찰

본고에서는 노화와 죽음에 대한 종교적 관점을 세 종교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각 종교는 서로 다른 철학적 전제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종교 간의 상이성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비종교인이든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자이든지 간에 여러 종교 전통에서 보는 노화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인간의 실존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에 종교 간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 보면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각 종교가 주장하는 노화와 죽음에 대한 입장의 공통점을 먼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 종교가 모두 삶의 과정과 죽음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과학이 죽음의 차원을 비과학적 차원으로 외면하는 것과 대조된다. 오히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삶에 대한 이해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세 종교는 노화의 과정을 ‘되어감(becoming)’의 과정으로 본다는 점이다. 불교에서는 해탈의 과정으로, 유교에서는 도덕적 완성의 과정으로,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온전한 부활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화는 기계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질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 사실, 이 질적인 시간이 생물학적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진다. 셋째, 세 종교는 노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부정적인 차원이 오히려 노화가 가진 긍정적인 의미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유교, 기독교 모두는 늙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부정적으로 보이는 늙음의 과정 자체가 각 종교가 주장하는 인간의 참된 본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렇지만 노화와 죽음에 대한 세 종교의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각 종교가 가진 독특한 세계관의 차이에 기인한다. 불교의 경우 현상 세계는 변화무쌍한 무상한 세계이다. 이 세계는 참된 세계가 아니라 망상의 세계이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늙어감도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속해 있어서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다. 유교의 경우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둔다. 따라서 불교보다 더 실용적인 입장에서 있다. 유교는 불교에서처럼 현실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기 보다는 현실 세계

속에서 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한다. 특히, 유교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다. 그리고 이 품성은 가정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모든 가치는 효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늙음의 의미도 이 틀에서 이해된다. 우주적 윤리적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신념 때문에 장수와 윤리적 삶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기독교는 창조 사상과 구속 사상 때문에 불교와 유교의 모델과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무로부터의 창조 사상은 현상 세계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게 해 준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시 타락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현상 세계는 선하지만, 악에 물들어 있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인간은 노화와 죽음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구속 사상은 노화와 죽음을 이기는 길을 마련해 준다.

필자는 지금까지 노화와 죽음에 대한 종교적 해석의 몇 실례 및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 생의 후반기에 대한 연구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의미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노화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은 과학적 설명과 과학적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학적 기술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여러 사회과학적 접근은 노년의 삶을 물질적으로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화에 대한 종교적 관점이 종교적 구원이라는 특정 종교들의 목표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의미에 대한 욕구, 정신적 성장에 대한 욕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올바른 노년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월운 역 (2006). **잡아함경 2**. 서울: 동국역경원.
- 김학주 역 (1995). **중용(中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학주 역 (1999). **논어(論語)**.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학주 역 (2013). **맹자(孟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성래 (2011). **인물 과학사 1 한국의 프로이드** 최지몽부터 과학대중화운동 김용관까지, **한국의 과학자들**. 서울: 책과 함께.
- 성한용 역 (2003). **성어거스틴의 고백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안양규 (2015). **불교의 생사관과 죽음 교육**.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이용주 (2015). **죽음의 정치학: 유교의 죽음 이해**.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Brown, P. (2013). *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liade, M. (1998). *Myth and reality*. Long Grove, Illinois: Waveland Press, Inc.
- Hume, D. (1956). *A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Clarendon Press.
- Moberg, D. (2005). Research in spirituality, religion, and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5(1-2), 11-40.
- Pranger, M. (2001). Time and narrative in Augustine's "Confessions." *The Journal of Religion*, 81(3), 377-393.
- Ruegg, D. (1997). The uses of the four positions of the Catuskoti and the problem of the description of reality in Mahāyāna Buddhism.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5(1-2), 1-71.
- Sorabji, R. (2006). *Self: Ancient and modern insights about individuality, life, and deat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Tillich, P. (1959). *Theology of cul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Traiger, S. (1985). Hume on finding an impression of the self. *Hume Studies*, 11(1), 47-68.
- Young, F. (1991). 'Creatio Ex Nihilo': A context for the emergence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44(2), 139-152.

원고접수일: 2017. 10. 06.

수정원고접수일: 2017. 11. 15.

원고게재승인일: 2017. 11. 20.